

# ‘마스크·봉쇄’ 내놓고 외면하더니... 美 공화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 ‘쓴맛’

### 노스·사우스다코타·아이오와 등 코로나 확진·사망 비율 최상위권 주민들에 책임 돌리며 뒤늦게 규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꺼리는 등 코로나19에 대해 대체로 불간섭주의 노선을 택했던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미국 주들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 지역은 대평원과 중서부의 북부에 있는 주들이다. 대표적인 곳이 노스다코타와 사우스다코타다. 인구수로 나눈 이들 주의 최근 7일간 신규 코로나19 감염자와 입원환자,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후 미국 내 최고치다. 그 주변에 있는 아이오와·와이오밍·네브래스카·아이다호 주도 신규 환자와 입원자, 사망자 수에서 두 주를 뒤쫓고 있다. 이들 주에서는 병원들이 병방 끝에 몰린 가운데 사업체·점포들은 직원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었다. 모임을 규제하기를 꺼리고 마스크가 바이러스 차단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줬다. 7월 관할 지역인 러시모어산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집회 때는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독려했다. 지난달 기고문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기를 원한다면 자유롭게 그렇게 해도 된다.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창피를 줌 그걸 쓰도록 해선 안 된다. 정부는 그걸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CNN은 “보건 측면에서 그 결과는 재앙적이었다”라며 주민이 88만5000명인 이 주에서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1400명이 넘는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이 주의 7일간 양성 판정 비율은 무려 58%에 달하고 있다. 한 응급실의 간호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19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며 숨겨가고 있다고 증언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줄곧 마스크 의무화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7일간 인구수로 나눈 이 주의 신규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는 미국 50개 주 중 1위였다. 인구 대비 신규 입원 환자는 사우스다코타주에 이어 2위다. 버검 주지사는 결국 지난 주말에야 주민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실내 모임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주의 의료 자원 부족을 들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한 계속 병원에서 일하도록 했다. 버검 주지사는 “우리의 상황은 바뀌었고, 우리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50개 주 가운데 가장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주의

마크 고든 주지사는 봉쇄 정책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고, 마스크를 의무화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인구수로 나눈 이 주의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50개 주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공화당 소속 고든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무책임한 주민들을 가리켜 “얼간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데 의존했다. 그리고 그들은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와이오밍주에서 다른 보건 규제보다 아픈 직원들 때문에 문 닫은 사업체·점포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와이오밍주는 여전히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의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든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해야만 할 것”이라며 마스크 의무화와 추가 규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16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실내 모임을 15명 이내로 제한하는 보건 명령을 내렸다. 수개월간 마스크 의무화와 봉쇄령을 거부해오다 내린 결정이었다. 아이오와주는 인구수 대비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노스·사우스다코타주 다음으로 많고, 인구수로 나눈 입원 환자 수는 미국 내 4번째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이런 변화가 쉽거나 인기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장을 계속 열고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며 의료 시스템이 안정되도록 하려면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페루 두번째 임시 대통령 취임 페루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임시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위해 수도 리마의 의회에 도착하고 있다. 페루에서는 의회가 지난 9일 부패를 이유로 국민적 인기가 높던 마르틴비스카라 전 대통령을 탄핵한 후 대규모 시위 사태가 빚어져 마누엘 메리노 전 임시 대통령이 취임 당새 만에 사임했다. 사가스티는 메리노의 뒤를 이어 이날 두 번째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다. /연합뉴스

## 인터넷 규제가 바꾼 중국 최고부자

### ‘물장사’ 증산산 71조원 선두 엔트 상장 불발 마윈 가치 하락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최근 흔들리면서 생수 기업 농푸산취안 창업자인 증산산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 텐센트 창업자 마화평을 넘어 다시 중국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다. 18일(한국시간) 오전 기준 포브스의 실시간 세계 부호 리스트에 따르면 증 회장의 재산은 644억 달러(71조2000억원)로 중국 1위, 세계 17위를 차지했다. 중국 2~3위 부자인 마윈 알리바바 전 회장과 마화평 텐센트 회장의 재산은 각각 608억 달러, 570억 달러로 집계됐다. 증 회장이 1위 자리를 되찾은 것은 최근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 주가가

반독점 규제 발표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한 반면 농푸산취안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17일 홍콩 증시에서 증 회장이 75% 지분을 가진 농푸산취안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28% 오른 44.2홍콩달러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16일에도 농푸산취안은 20% 이상 급등했다.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증 회장은 지난 9월 농푸산취안의 상장과 동시에 중국 최고 부호 자리에 단숨에 올라섰다. 하지만 이후 알리바바와 텐센트, 핀둬둬 등 중국 기술주들이 강한 랠리를 펼치면서 최상위권에서 밀려났는데 이번에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이 이달 인류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계획대로 진행했다면 마윈이 중국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포브스가 집계해 발표하는 마윈의 재산에는 비상장사인 앤트 그룹 지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전세계 코로나 백신 41%

### 임상 3단계...“백신 출시 임박”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41%는 3상 단계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6일 기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등록된 전체 임상시험 1천544건 중 백신은 107건으로 6.9%, 치료제는 1437건으로 93.1%를 차지했다. 이중 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의 비중은 백신 임상이 44건으로 41.1%, 치료제 임상이 433건으로 30.1%였다. 연구 주체별로는 연구자 948건(61.4%), 제약사 549건(35.6%), NIH 등 정부 주도 47건(3%)이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 ‘BNT162’의 임상 3상 중간결과 나타난 90% 이상의 유효성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 모더나와 국립알레르기·감염연구소(NIAID)가 공동개발한 ‘mRNA-1273’의 임상 3상 중간결과에서 94.5% 이상의 예방효과 가능성이 나타나 백신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기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임상시험계획은 28건으로, 전원 대비 치료제 임상이 24건에서 26건으로 2건 증가했다. 치료제 임상 전원 대비 2건이 추가 종료돼 현재 총 18건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학교 폐쇄 항의 골목서 공부하는 이탈리아 학생들 아나타라코벨리(왼쪽 12)와 그의 친구 리사 롤리아티(오른쪽 12)가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이탈리아 칼비노 학교 밖 골목에 책상을 놓고 공부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인 학교 폐쇄에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의 공공시설을 모두 폐쇄했으며 특정 시간 전국적 통행금지령도 내렸다. /연합뉴스

## 성전환 후 출산, 엄마인가 아빠인가

### 영국 가디언 기자 출생증명서류 놓고 법정 공방

영국에서 성전환 후 아이를 낳은 남성이 과연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 기자인 프레디 매크널(34)은 2017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자궁을 제거하지 않았던 그는 그해 아이를 갖기 위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고 2018년 아들을 낳았다. 성전환 후 법적으로 남성이었던 매크널은 어느 날 아이의 출생증명서류에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어머니 대신 그냥 ‘부모’로 등록되

길 원했으니 이마저도 거부했다. 매크널은 이후 영국 헌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출생증명서 기록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수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매크널은 1·2심에서 모두 패배한데 이어 전할 연방대법원도 매크널의 각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매크널은 결국 3번의 재판 모두 패한 것이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유럽인권재판소에 다시 제소할 계획이다. 매크널을 변호한 스킷 헬리데이는 “차별적인 정책은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법원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앤드루 맥팔렌 잉글랜드·웨일스 가정법원 판사는 “법적인 성별과 부모의 지위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매크널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